

한국 축구, 중동 모랫바람 뚫어야 金 보인다

내일 사우디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

女子는 인도와 2차전... 상대 전력 우세

인천 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대표팀이 17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노린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이날 밤 8시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북방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한다.

지난 14일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0으로 상쾌한 승리를 거둔 한국은 사우디를 조별리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다. 사우디는 전날 라오스와의 첫 경기에서 역시 3-0으로 이겼다.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인 이날 경기에서 이겨야 한국은 16강 이후 편안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조 1위로 16강에 가야 비교적 손쉬운 상대인 B조 2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B조는 우즈베키스탄과 홍콩,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돼 우즈베키스탄이 조 1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의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하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은 썩 좋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후반 30분이 넘도록 1-0으로 살얼음 리드를 지키다가 후반 32분과 35분에 골씩 넣어 점수 차를 벌렸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많지 않았고 세트 피스의 정교함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부담이 컸던 1차전을 세 골 차 승리로 장식했고 팀의 주축인 김신욱(울산), 김승대(포항) 등이 골 맛을 봤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2차전 상대인 사우디는 23세 이상의 와일드카드를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고 1차전 라오스와의 경기 내용도 썩 좋지 않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진다.

윤덕여 감독의 여자 대표팀은 같은 시간 남동아시아드 럭비 경기장에서 인도와 맞붙는다. 여자 대표팀은 14일 1차전에서 A조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거론된 태국을 5-0으로 완파해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박희영(스포츠토토), 유영아·전가을(이상 현대제철) 등 주포들이 골을 터뜨렸고, 정설빈(현대제철)은 1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가능성을 부풀렸다. 2차전 상대인 인도는 첫 경기에서 몰디브를 15-0으로 크게 물리쳤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18위, 인도는 50위로 차이가 나는데도 인도 역시 한국과의 경기에 힘을 쏟기보다 조별리그 최종전인 태국(29위) 전에 전력투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15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회복훈련에서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운동장을 뛰고 있다. /연합뉴스

이모저모

성화 내일 인천 도착

○아시안게임을 밝힐 성화가 17일 인천에 도착한다.

성화는 이후 인천시내를 누비며 축제 분위기를 띄운 뒤 19일 오후 6시 인천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 때 성화대에 점화돼 대회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

뉴텔에서 채화된 성화는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중국 웨이하이시로 이동했다. 서해바다를 끼고 인천과 마주하는 웨이하이에서 봉송 행사를 마친 성화는 다시 특수 안전랩에 담겨 서해를 건넌다. 그렇게 인천에 도착한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쳐지는 '합화식'을 치른 뒤 8월14일부터 전국 순회길에 올랐다.

입장권 판매율 20% '저조'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까지 개회식을 포함한 전체 입장권 판매율이 약 18%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대표팀의 야구 경기와 박태환(인천시청)이 출전하는 수영, 손연재(연세대)가 나서는 리듬체조 등의 입장권은 일찍 매진됐다.

그러나 육상과 축구의 경우 입장권 판매가 크게 부진해 전체 입장권 판매율을 끌어 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육상은 경기장 규모가 크지만 아무래도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고 축구는 한국 대표팀 경기에는 관심이 물리는 반면 그 밖의 경기는 사실상 텅 빈 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가 선수·임원 등에 무료 시내투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선수와 임원,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회 기간 무료 시내 투어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서비스센터에 인천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심권 2회, 강화권 1회 등 1일 3회의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권 관광은 오전 9시, 오후 1시30분 등 2차례 선수촌을 출발, 월마공원·도호부청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송도컨벤시아 등지를 거쳐 선수촌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된다. 강화권 관광은 오전 9시30분 선수촌을 출발, 송도컨벤시아·인천대교·아라뱃길전망대·강화평화전망대·강화역사박물관을 둘러보고 선수촌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문의) 032-440-4053. /연합뉴스

류중일 "전승으로 金 따겠다"

야구대표팀 소집 본격 훈련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지 않는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전승 우승을 노린다.

류중일(51·사진) 감독은 15일 "24일 대만과의 경기가 사실상 조 1·2위 결정전이 될 것"이라며 "그 경기도 꼭 승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만·홍콩·태국과 B조에 속했다. 홍콩과 태국은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다. 대만을 넘어 조 1위를 사실상 확정할 수 있다.

류 감독이 B조 예선 대만전 필승 의지를 드러낸 이유는 두 가지다.

그는 "결승전에 만날 가능성이 큰 대만의 분위기를 살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도 조 1위를 해야 준결승전에서 편한 상대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는 A, B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펼치고 각 조 1·2위 팀이 크로스토폰먼트로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른다.

A조(일본·중국·파키스탄·몽골)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도 무난하게 2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인야구 선수로 대표팀을 꾸리긴 했지만 다

소 걸리려온 일본보다는 한 수 아래인 중국과 만나야 한국은 부담 없이 준결승전을 치를 수 있다.

결국 류 감독은 24일 대만전을 '금메달을 향한 첫 관문'으로 꼽고 전력을 쏟기로 했다.

장시오칭(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왕위예린(시카고 컵스) 등 미국 마이너리거와 일본파 에릭 쉐(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등 빠른 공을 갖춘 투수들은 요주의 대상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1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소집해 본격적인 아시안게임 준비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개막식 저녁 날씨 '선선'

인천기상대와 기상전문기업 '웨더아이' 등의 예보에 의하면 개막식이 열리는 19일 저녁 인천 서구 연희동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비는 내리지 않고 점차 구름이 많아지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인천 앞바다의 물결도 약 1~2m 정도 로만 일 전망이라 전반적으로 바람도 세지 않

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다.

경기장 일대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25도로, 개막식이 진행되는 저녁 시간에는 20~22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년 가을 기온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한 개막식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관객들은 얇은 바람막이 정도는 챙기는 것이 좋겠다. /연합뉴스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둔 15일 오전 개막식이 진행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막바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기계체조팀 2군 파견

자국 개최 세계선수권 주력...일본 에이스 우치무라도 불참

기계체조에서 세계 최강으로 군림해온 중국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B팀(대표팀 2진)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의 메달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자국에서 열리는 난닝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 주력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종목에 A팀(대표팀 1진)이 아닌 B팀을 파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기계체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중국은 이 종목에 걸린 175개의 금메달 가운데 무려 123개를 독식했다.

신승자 일본의 '체조 황제' 우치무라 고타이 역시 난닝 세계선수권대회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아시안게임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치무라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다. 중국이 B팀을 보내고 일본의 에이스인 우치무라가 빠지면서 한국 기계체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인천 아시안게임 남녀 기계체조에는 총 14개

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중국 B팀에서는 노장 주카이가 기계체조 대표팀을 이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3관왕인 주카이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2011년 대표팀으로 복귀한 주카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2관왕(단체·마루)에 오르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에 주카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양학선이 있다. 2011년 도쿄세계선수권, 2012년 런던올림픽, 2013년 카잔유니버시아드, 2013년 엔트워프 세계선수권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도마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명실상부한 '도마의 신'이다.

양학선의 경쟁자로는 북한의 리세광이 꼽힌다. 양학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도마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리세광은 양학선과 마찬가지로 도마에서 가장 높은 난도인 6.4 기술을 두 개나 구사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주력하는 틈을 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노려볼 참이다. /연합뉴스